



미 증시, 기대인플레 둔화에도 혼조세 마감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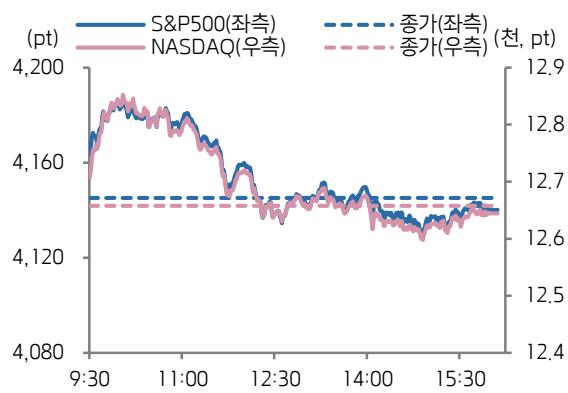
8 일(월)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상원 통과, 뉴욕 연은 7 월 소비자기대지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 호재로 상승 출발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 속 엔비디아 주가 약세 등으로 보합권 등락을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 (다우 +0.09%, S&P500 -0.12%, 나스닥 -0.1%, 러셀 2000 +1.01%).

7 월 뉴욕 연은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 6.8%에서 6.2%, 3년 3.6%에서 3.2%, 5년 2.8%에서 2.3%로 하락. 식료품과 휘발유 등의 생활 필수품의 물가 폭등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4,300 억달러 규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The Inflation Reduction Act) 상원 통과, 금요일에 하원 투표 이루어질 예정. 3,000 억 달러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약 1,200 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비세 강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예정.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 억달러 투입(친환경 자동차 및 제조시설에 세액공제, 개인의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혜택 제공 등),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개혁 내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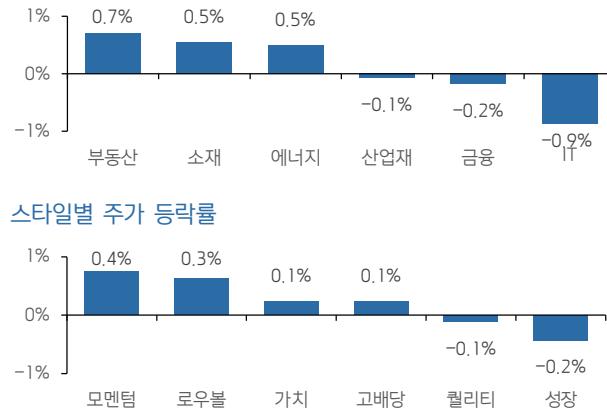
업종별로 부동산(+0.7%), 소재(+0.5%), 에너지(+0.5%) 업종 강세, IT(-0.9%), 금융(-0.2%), 산업재(-0.1%) 업종 약세. 엔비디아(-6.3%)는 8 월말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6%대 급락. 마이크론(-1.62%), AMD(-2.19%) 등 반도체 업종 동반 약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140.06	-0.12%	USD/KRW	1,306.40	+0.63%
NASDAQ	12,644.46	-0.1%	달러 지수	106.44	-0.17%
다우	32,832.54	+0.09%	EUR/USD	1.02	-0.02%
VIX	21.29	+0.66%	USD/CNH	6.76	-0.03%
러셀 2000	1,941.21	+1.01%	USD/JPY	134.97	+0.01%
필라. 반도체	3,004.34	-1.6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652.44	+0.35%	국고채 3년	3.127	+5.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170	+5.5bp
Eurostoxx50	3,757.22	+0.85%	미국 국채 2년	3.205	-2bp
MSCI 전세계 지수	640.83	+0.2%	미국 국채 10년	2.757	-7bp
MSCI DM 지수	2,758.72	+0.2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01.79	-0.11%	WTI	90.6	-0.18%
MSCI 한국 ETF	61.06	+0.54%	금	1804.9	-0.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9.5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뉴욕 연은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도 장중 7월 미 CPI 경계심리 유입 가능성
- 미국 믿 주식 급등이 국내 중소형주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 원/달러 환율 하락 vs 미국 반도체주 약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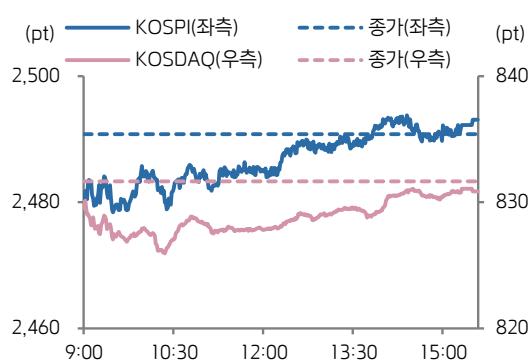
지난 5일(금) 미국 7월 고용 슈퍼서프라이즈 직후 9월 자이언트스텝 인상 가능성 확대로 주식시장은 단기 조정 압력을 받기도 했으나, 이를 소화하면서 위험선호심리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 8일(월) 배드베스앤비욘드(+39.8%), 게임스탑(+8.6%) 등 믿 주식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도 시장에 투기 수요들이 회복하고 있음을 시사.

그러나 전거래일 나스닥이 장 초반의 상승폭을 장중 내내 반납한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은 고용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10일(수) 발표 예정인 7월 미국의 CPI 불안 심리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월 헤드라인 CPI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8.7~8.8%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6월(9.1%)에서 피크아웃할 전망이나, 올해 2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CPI 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 더 나아가, 9월 FOMC(20~21일)까지 공식적인 연준의 정책 회의 공백기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CPI 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시에는 1994년 4월처럼 임시회의를 통한 긴급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다만, 1990년대 당시 연준은 시장과의 소통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었으며, 현재는 2010년대 들어서는 매회의 후 연준의장의 발언, 포워드 가이던스, 장기 경제 전망 등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수단이 더 강화됐다는 점이 차별화된 부분. 또한 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1년 기대인플레이션(6월 6.8%→7월 6.2%)이 둔화됐으며, 세부적으로 주택(4.4%→3.5%), 식료품(9.3%→6.7%) 등 주요 세부 항목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따라서 7월 CPI 발표 후에 연준의 긴급 금리 인상 혹은 9월 FOMC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현시점부터 기정사실화하기 보다는 이후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잭슨홀 미팅(8월 25~27일) 결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역외 현재 1,299 원대) 등 일부 매크로상 우호적인 재료에도 10일(수) 미국 CPI 이벤트를 앞둔 경계 심리, 미국 반도체주 약세(엔비디아 -6.3%, 마이크론 -1.6%) 등으로 제한적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태양광 등 친환경 관련주들이 미 의회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태양광, 배터리 대규모 투자, 친환경 관련 세액 공제 등)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관련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전거래일 일정부분 국내 증시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이를 고려 시 금일 국내 증시는 업종 내에서도 개별 실적 및 이슈에 따라 차별화되는 종목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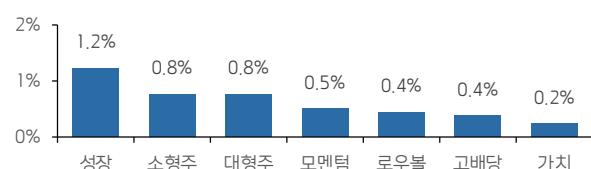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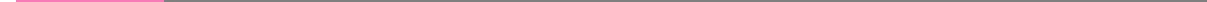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